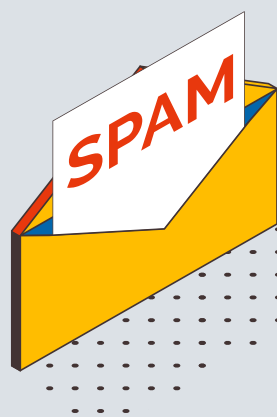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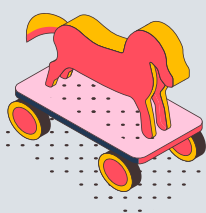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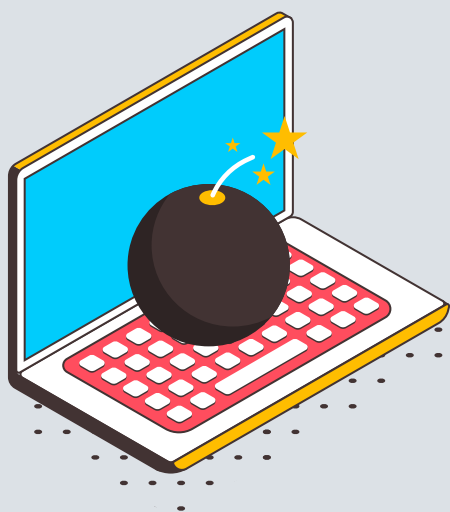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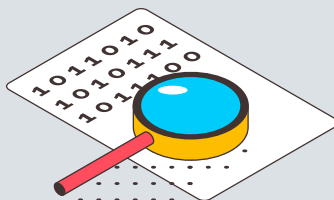


선 넘는
온라인 세계에서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법

디지털 호신비책



북트리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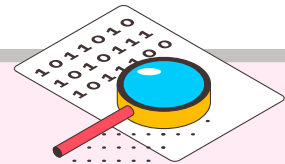
디지털 과한 1

내가 무심코 올린 사진을 보고, 누군가 나를 찾아냈다!

기다리던 해외여행! 인스타그램에 자랑 포스트를 잔뜩 올렸어요.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누군가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 갔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가 집을 비우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죠. ‘친구’가 어찌 이럴 수가! 슬프게도, 범죄는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더구나 소셜 미디어 친구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인터넷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중에는 나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남기는 흔적들이 그들에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에는 찍은 위치와 날짜 등 여러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집에서, 즐겨 가던 식당에서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린 사진이 내 위치를 알려 주는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무심코 올린 자녀나 가족의 사진이 협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죠. 게다가 ‘구글 지도’ 앱에는 내가 방문했던 장소나 이동 경로가 모두 기록돼 있어 혹시라도 계정 정보가 유출되면 나의 동선이 다 드러납니다.

나의 생활을 모든 사람에게 노출할 필요는 없겠죠? 디지털 흔적은 가능하면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호신비책 1]

내 동선을 남기지 않습니다

⇒ 구글 ‘지도’ 앱 > ‘내 타임라인’ 메뉴 > ‘정보 저장 중지’ 선택

[호신비책 2]

사진에서 정보를 지우고 공유하세요

⇒ 아이폰: ‘사진’ 앱 > ‘사진 공유’ > ‘옵션’ > ‘위치’ 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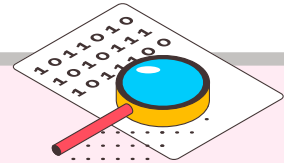
⇒ 갤럭시: ‘갤러리’ 앱에서 사진 선택 > ‘상세정보’ > ‘편집’ > ‘위치정보’ 옆 ‘-’ 누르기

디지털 괴한 2

누군가 문자 메시지에 링크 함성을 파 놓았다!

딩동!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려요. “택배 주소 오류. 수정 부탁드립니다.” “부친께서 소천하시어 부고 문자 드립니다.” 같은 문구가 짧은 URL 주소와 함께 뜹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혹시 잘못되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부고 소식은 놓치면 큰 실례가 될 수 있기에 자기도 모르게 링크를 눌러 보게 되죠.

하지만 설불리 링크를 눌렀다가 스마트폰에 자기도 모르게 악성 소프트웨어가 깔리고, 내 개인 정보와 주소록, 사진 등이 통째로 유출될 수 있어요. 범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 가거나, 친구를 사칭해 대화하며 입금을 유도합니다. 보이스 피싱을 목적으로 그럴싸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데에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범들이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유죠.



[호신비책 1]

모르는 사람이 보낸 URL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들어가 보지 마세요. 택배 관련 알림인데 발송자나 택배사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경우처럼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bit.ly’처럼 단축된 URL을 쓴 경우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의 문자인데 ‘국제 발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호신비책 2]

앱을 함부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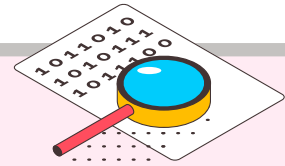
⇒ 모바일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앱스토어 등 인증된 앱 마켓에서만 다운로드하세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 설치 파일인 APK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일은 피해야 하죠. 실수로 링크를 눌러 APK 파일이 설치된 것 같다면, ‘다운로드’ 폴더에서 ‘.apk’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찾아 지우세요.

디지털 괴한 3

이유 없이 나에게 말을 거는 예쁜 여자!

김 카스트로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미군 군복을 입은 프로필 사진을 걸어 놓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무차별적으로 친구 신청을 하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독특한 직업과 멋진 외모의 교포가 친구 신청을 하면 관심이 가게 마련이죠. 이렇게 친구가 되어 대화를 이어가며 친분을 쌓다가 어느새 ‘한국에 가서 당분간 지내려 한다,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거나 ‘파병 근무 중 다쳤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요청을 해 옵니다. 그 간의 친분 때문에 의심 없이 돈을 건네면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는 사실 누군가가 성실한 생활인인 카스트로라는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애인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로맨스 스캠’이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외국에 근거지를 둔 온라인 사기 조직입니다.



[호신비책 1]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등으로 말을 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궁금하다’거나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는 식이죠. 하지만 그런 주제를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마세요.

[호신비책 2]

상대가 진짜 사용자인지 잘 살펴봐요

⇒ 누군가 소셜 미디어에서 말을 걸면, 그 사람의 프로필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인지, 친구는 많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세요.

그렇듯 직장 정보와 실감 나는 일상 사진이 있더라도, 가짜 계정은 대개 내용이千篇일적으로 비슷하고, 나와 ‘함께 아는 친구’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아예 페이스북 등에서 친구 신청을 ‘친구의 친구’만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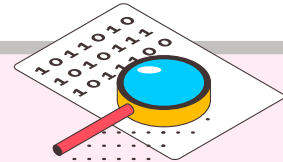
디지털 괴한 4

DM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그 사람!

인스타그램이나 X(구 트위터) 등의 1:1 채팅을 통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악인이 많습니다. 2020년 일어난 ‘n번방 성착취물 사건’도 익명으로 주로 활동하는 트위터에서 피해자가 많이 나왔어요.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그런 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거나 판매한 사건이죠.

범인들은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신상을 확인했습니다. 신상을 드러내지 않고 노출이 심한 신체 사진을 찍어 올리는 등의 일탈 행동을 하는 ‘일탈계’가 표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사진이 다른 곳에 도용되고 있다’는 식의 DM을 보내고, 거기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그럴싸한 가짜 사이트에 연결되게 해 개인 정보를 가로채는 등의 방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계정 정보를 알고 난 후엔 경찰을 가장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하겠다.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를 적어라’,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지지 않으려면 순순히 협조해라’ 하는 식으로 협박해 피해자를 움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것이죠.



[호신비책 1]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주 쉽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소셜 미디어나 채팅 앱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마세요!

[호신비책 2]

부모님, 선생님과 의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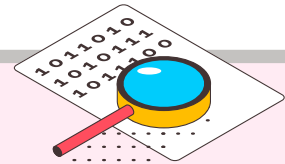
⇒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혼자 끙끙 앓다가, 혹은 주변 친구에게만 이야기하다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선생님에게 상담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와 여성긴급전화(1336)로 언제든지 전화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카카오톡 청소년 상담 채널 @d4youth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괴한 5

메타버스 세상 속 어린이 앵벌이!

미국 유타주에 사는 안나는 10세 때 처음 로블록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게임 제작이 재밌어 작곡과 프로그래밍, 3D 모델링도 배웠죠.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게임 개발 팀이 안나의 게임을 눈여겨보고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안나는 게임 수익의 10퍼센트를 받기로 하고 미술과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로블록스 게임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어, 16세 때 안나의 연간 수익은 30만 달러로 부모님 두 사람의 수입보다도 커졌어요.

안나는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열심히 게임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리더가 안나 등 청소년 멤버들에게 고정된 급여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안나는 수익이 40퍼센트나 줄었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죠. 로블록스에서 계속 게임 제작자로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에 로블록스 커뮤니티에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꺼려졌습니다.



[호신비책 1]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세요

⇒ 메타버스나 온라인 게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할 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온라인 공간의 장점이지요. 그러나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 단호히 거리를 둘 필요도 있습니다.

[호신비책 2]

변의 믿을 만한 어른들과 의논하세요

⇒ 메타버스는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라 아직 관련 법이나 규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법과 규제보다도, 가까운 사람의 도움과 지원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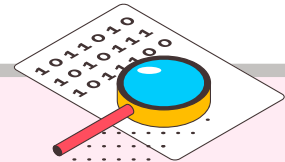
디지털 괴한 6

맛있는 쿠키인 줄 알았는데...

갖고 싶은 신발이나 옷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검색 포털에서 찾아봤는데, 이후 어느 사이트를 가건 어느 앱을 열건 그 신발이나 옷 광고가 뜨는 것을 본 일이 있지요? 뉴스 사이트에 가면 상단에 광고가 나오고, 페이스북을 열면 타임라인 중간에 광고가 뜨죠. 마치 광고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그 물건을 지금 당장 사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광고를 ‘리타겟팅 **retargeting** 광고’라고 합니다. 한번 어떤 상품에 관심을 보인 사람을 따라다니며 그를 겨냥한 광고를 계속해서 보여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웹 사이트는 방문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쿠키’라는 이름으로 약간의 정보를 저장해 둡니다. 로그인 정보 등을 저장해 두어 편리할 때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쿠키로 저장해 사용자를 추적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호신비책 1]

쿠키를 주기적으로 삭제합니다

⇒ 쿠키는 인터넷 사용을 편리하게 해 주지만, 지나치게 쌓일 경우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될뿐더러 인터넷이 느려지고 컴퓨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인터넷 브라우저의 설정에 들어가 주기적으로 삭제해 주는 것이 좋아요.

[호신비책 2]

클릭은 신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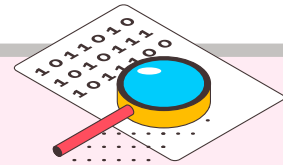
⇒ 인터넷에서 마주치는 팝업 광고, 기프트콘을 내걸고 진행하는 이벤트 배너 등을 클릭할 때에는 주의하세요. 믿을 만한 곳에서 주관하는 행사인지, 경품을 대가로 나의 어떤 정보를 얻어 가고자 하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 보세요.

디지털 괴한 7

내 관심을 가로채는 가짜 뉴스!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편리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에 원하는 글을 쓰고, 유튜브에서 원하는 대로 떠들 수 있죠. 정체불명의 언론사를 만들기도 쉬워졌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쉽게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인터넷 공간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기사를 만드는 좋은 언론사나, 아무 검증 없이 편파적으로 글을 쓰는 개인 블로그가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두 그저 타임라인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기사들일 뿐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평소 자기 생각과 비슷한 의견을 듣고 싶어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온라인 공간에 퍼뜨리기가 쉽고, 이런 저질 콘텐츠를 팔아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신비책 1]

출처를 잘 확인합니다

⇒ 가짜 뉴스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나 편향적으로 부풀려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의 출처가 명확한가, 어떤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드러나 있는가 등을 확인하세요. 막연한 인터넷 루머나 익명 관계자를 언급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기사 속 이미지를 검색해 과거에 다른 곳에 쓰인 이미지는 아닌지 살펴보세요. 기업 등이 광고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만든 스폰서 기사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호신비책 2]

다양한 관점을 접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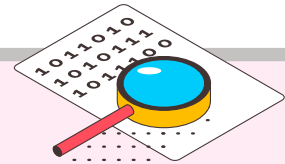
⇒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뉴스만 찾아 읽지 않기를 권합니다. 다양한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사마다 논조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고 자신만의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어요.

디지털 괴한 8

과연 아름답기만 한 가면일까? 카메라 필터의 명암!

소셜 미디어에는 예쁘고, 잘생기고, 몸매 좋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하고 멋지고 잘나가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죠. 타임라인을 따라 내려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소셜 미디어에 시간을 많이 쓸수록 우울이나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사용 시간을 줄이면 이런 문제들도 함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카메라 앱의 필터나 보정 기능도 눈에 보이는 외모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성형외과에는 앱으로 보정된 자신의 모습처럼 수술해 달라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외모를 신경 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소셜 미디어에 전시되는 보정된 아름다움에 자신의 기준을 맞출 필요는 없답니다.



[호신비책 1]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줄여 보세요

⇒ 타임라인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외모 강박을 많이 느낀다면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줄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중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렵다면 사용 시간을 줄이고 외모에 관한 사진보다는 일상이나 취미 등 삶의 다른 측면을 다루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업 등이 광고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만든 스폰서 기사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호신비책 2]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으세요

⇒ 아름다움을 남이 판단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장점과 단점, 아름다움과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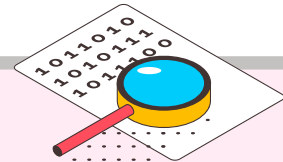
디지털 괴한 9

한번 넘기기 시작하면 밤을 새우는 숏폼 동영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긴 시간 이용하는 앱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2022년 9월 기준, 한국인은 유튜브 앱을 한 달에 평균 32.9시간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중 하루 반에 가까운 시간이 유튜브 시청에 쓰였다는 이야기죠.

최근에는 1분 안팎의 짧은 동영상, 이른바 ‘숏폼’ 영상이 나오면서 동영상 보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잠자리에서 짧고 재미있는 영상을 들여다보며 별생각 없이 엄지로 영상을 쓸어 올리다 보면 어느새 새벽 늦은 시간이 되어 있곤 하죠.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게 유도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영상들을 보며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이들 기업의 광고 수익은 늘어납니다.



[호신비책 1]

시청 시간을 늘어로 확인해 보세요

⇒ 시청 시간 확인하기: 유튜브 앱 > 오른쪽 하단의 내 계정 아이콘 > ‘시청 시간’ 페이지

⇒ 유용한 보조 기능: ‘시청 시간’ 페이지 > 하단 ‘YouTube 시간 관리 도구’ >

‘시청 중단 시간 알림’, ‘취침 시간 알림’ 설정

[호신비책 2]

영상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 추천 영상 자동 재생 중지:

‘YouTube 시간 관리 도구’ > ‘모바일/태블릿에서 자동 재생’ 끄기

⇒ 시청 기록 중지: 유튜브 앱 > ‘설정’ > ‘전체 기록 관리’ > ‘YouTube 기록’ 일시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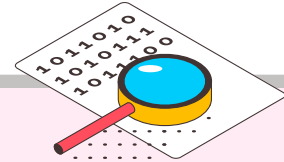
디지털 과한 10

너무 재미있어 빠져나오기 힘든 게임!

부모님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자녀의 게임 문제입니다. 게임을 더 많이, 자주 하고 싶은 자녀와 어떻게든 게임 시간을 줄이고 싶어 하는 부모님이 아웅다웅하는 일을 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게임은 일상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죠.

게임은 '재미를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 안에서 성과를 달성해 가는 일'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규칙 내지는 플레이를 제약하는 조건이 있고, 노력과 기술, 전략으로 이 한계를 극복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보상을 얻는 과정이죠. 도전과 극복, 보상의 단계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게임을 마약과 같이 중독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중독과 행동 장애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면서 겪는 특정 시기의 어려움이나 일탈을 모두 질병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디지털 기술 때문에 과거에 없던 낯선 행동 양식이 등장하곤 한다는 것은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호신비책 1]

게임에 빠져드는 이유를 파악해 보세요

⇒ 현실에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온라인에서 친구를 발견했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억눌린 마음을 풀 곳이 게임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은 놀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놀이는 꼭 필요하지만, 모든 시간을 놀이로 채울 수는 없겠죠?

[호신비책 2]

건강한 도파민을 만들어 보세요

⇒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는 주로 만족과 보상 등에 관여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처럼 운동이나 간단한 청소 등, 일상 속에서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고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기분 전환을 위한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